

폐지수집 노인, 주 6일 일해야 겨우 16만원 벌어

복지부 '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 가구소득 113.5만원, 전체 노인 절반 미만

폐지수집 노인은 하루 5.4시간 씩 주6일 일하면서 한 달에 약 16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수집을 택했다. 일부는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전국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산되며, 평균연령은 76세로 파악됐다.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

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수준에 그쳤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등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

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식료품 지원' 36.9%, '생활 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다.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환경 불만족' 13.6%

등이다.

2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

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에 그쳤다.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03만개로 올해 대비 14만7000개 확대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요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폐지수집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호남선매천교 지하차도 개통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본부장 김윤양)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매천교 개량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2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천교는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협소한 철도 하부 도로로 인해 통행불편과 교통정체를 일으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충청본부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시청 및 서구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223억원(공단 75%, 대전시 25%)을 투입해 철도횡단지하차도를 확장(1차로→3차로)하는 공사를 시행해 열차안전운행 확보는 물론 보행안전,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



서천군, '해넘이 해돋이 명소 마琅진항으로 오세요'

2023년 제2회 해돋이 행사를 돌아보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해넘이 해돋이 행사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琅진항에서 열린다. 서천 마琅진항은 서해에 위치해 있지만 해넘이와 해돋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명소로, 매년 가족·친구들과 함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유명하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발판 놓다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남도 내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

도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기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

지부 신설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고, 천안아산 KTX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는 천안 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

고, 천안아산 KTX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 할 수 있다"라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 공직윤리시스템(PETI)서 일괄 공개

앞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 국회, 대법원, 현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헌층 편리하게 재산

■ 1월 2일자 신문 발행합니다. (신정)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업무 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모든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시스템을 통해 29만 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을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처는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

이정복 기자

송병배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1603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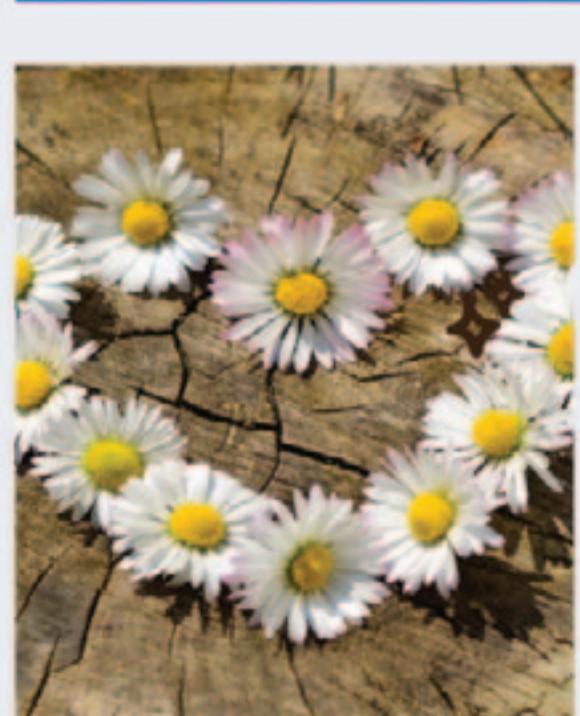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lab_10@naver.com
문자전화 - 070-8098-1834

충남경찰청, 황명선 전 시장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최종 혐의 없음

“고발 건 모두 허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은 황명선<사진> 전 논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불송치 결정문 주요내용에는 황 전 시장에 대한 고발 증거로 제시된 'K은행'의 금융

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행사 회서'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결장문 내용대로라면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넉달 전 8월 말 경 논산경찰서에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황 전 시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흡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

에 부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고발 내용과 증거가 전부 허위로 조작된 사실임을 적시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 만큼 경찰당국이 볼 때 황 전 시장에 대한 고발건이 '매우 의적이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을 향후 검찰수사에 중요한 전환점 및 속도에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전 시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흡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

하면서까지 증거를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허위 조작된 증거로 고발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증거 허위조작사건의 배후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역 정치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본회의 의결

김진표 의장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형 탈피오프’ 설립 눈앞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프’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프(Tel Aviv)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프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기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 체계화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본인이 퇴망할 경우 학부 졸업 후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의무복무를 마친 장교들이 기술벤처·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

으로 후속 지원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계부처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교육부 종리 시절 이스라엘 탈피오프 부대를 직접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프’ 설립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국회의장 자리으로 2월에도 탈피오프 부대를 다시 방문해 이스라엘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왔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프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화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던 바 있다.

국회=김성구기자

신위원회 여야 간사 등 21명과 함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 동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의무복무 기간(4년→6년)과 법률 시행시기(공포 후 1년→2년)를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쳤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프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화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던 바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 2024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단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024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 규모는 전업 2명과 전출 2명 등 총 8명이며,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렬별 균형 인사를 펼쳤다.

먼저 ▲심완보 총무담당관이 금산부군수로 임명됐다.

4급 전보 발령으로 ▲김용복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남도로 전출했다. 또 ▲김윤섭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자섭 충남도 자연재난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했다.

조길연 의장(부여 2·국민의힘)은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사무처 정기인사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술적 균형 인사로 적임자를 배치했다”며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밀거름으로 도의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열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활발하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경험을 밀거나 삶의 훗날 세종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성환기자

박 시장,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해 막판 총력전 이어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방문 ‘경찰복지법’ 통과 필요성 호소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아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중요성과 지역의 연원을 전달했다.

이만희(국민의힘, 영천·청도),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

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제출 중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박경귀 시장은 내년 초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전날 법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와 장동혁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27일 법사위 전제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아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잘챙기겠다”는 긍정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이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멀약한 충남 의료 인프라 혁신, 경찰 복지 향상,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 등 당초 계획된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의회, 2023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8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이 의회를 체험하며 견학한 민주시민으로서

의 역량을 향양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올해 2023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에는 총 14개교가 참가했으며, 참여 학생 중 1,031명이 소감문을 공모했다.

공모작 총 8명의 작품이 심

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중·고등부 ▲최우수상 강유은(현솔고2), 초등부 ▲최우수상 이서호(글벗초6) ▲우수상 천아영(전동초6), 박서운(보람초5), 금효린(보람초5), 오유나(보람초5), 최창주(현결초5).

이순열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활발하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경험을 밀거나 삶의 훗날 세종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시의회, 충청남도 건설본부 방문 건의문 전달

당진시의회는 지난 27일, 충청남도 건설본부를 방문해 ‘당진 기지시 ~한진 간 중흥2교에서 중흥3교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의 확장’에 대해 요구했다. 이날 충청남도 건설본부 방문은 김덕수 의장을 비롯해 지난 19일 당진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지시 ~한진 간 지방도 중흥2교에서 중흥3교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의 확장촉구 건의문’을 발표한 윤명수 의원과 심의수, 한상화 의원이 함께 방문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정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치의학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천안지역 숙원사업이다. 이는 국립대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충남도, 천안시 등 예산·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 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미 협정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종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성일종 의원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시작”

안면읍·고남면과 남면에서 각각 열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정보고회 첫 날인 지난 27일 오후 1시반 안면읍·고남면, 오후 3시반 남면을 시작으로 성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성황리에 시작됐다.

안면농협 2층에서 개최된 안면읍·고남면 의정보고회에는 약 400여명이 참석했고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남면 의정보고회에는 약 300여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성 의원은 올해 국비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언론들이 제자리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쟁취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수립될 미래인재 양성 사업 ▲천리포수목원 신립 유전자원 관리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잔디밭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립국악원 서산 본원 건립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성 의원은 “태안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직접 대표

발의한 사업도시개발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 기업도시가 국제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서산의료원에 신보건관센터 개소 ▲서산공항 건설 사업 등과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한 ▲고남~창기 국도 77호 도로 건설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기로립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안면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사업 ▲천리포수목원 신립 유전자원 관리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잔디밭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립국악원 서산 본원 건립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성 의원은 “바쁜 와중에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태안과 서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밭길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

최민호 세종시장 내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개정·지방법원 설치 등 8대 전략 추진’

세종시가 대한민국 제2의 수도에 걸맞는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등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정읍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제묘년(癸卯年)이 저물어가고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아오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새해에는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면서 “우리 시는 올해의 사자성으로 ‘유지필성(有志必成)’을 선정했다”며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제2의 수도’에 걸맞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뜻을 세우고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수준 높은 세종시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과거와 절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세종시 대개조를 시작하겠다”면서 “변증생 불변즉사, 위기가 곧 혁신의 기회라”며 “조직과 인력을 혁신하고, 미래 투자적인 관점의 재정역할을 정립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계획 중인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나겠다”면서 “또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을 제안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밝힌 내년도 주요 8대 전략으로는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회 수도 세종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속경제 도시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도시문화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혁신 실현 △아동과 여성의 편안한 명품 안전 도시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 △배우기 즐기는 세계적 한글문화수도 조성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도시다.

이를 위해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해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세종시민의 자랑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따라서 제2의 수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확신해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도시 성장을 위한 기관 유치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복지 도시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양자기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중성원자 양자컴퓨터를 개발한 미국 기업인 큐에라, KAIST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인재육성 등 도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지속경제도 강화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일시천리 투자 지원단과‘미래전략 펀드’를 운영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만든다.

이어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 인프라 등을 접점을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반다비 빙상장’을 연내 개장해 동계 종목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과 여성이 편안한 명품 안전도시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



보육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출산 장려금과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등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이 가장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이 앞으로 힘을 모아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협력사업을 고도화하는 대통령 지속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한

다.

최 시장은 “내년에는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으로 지속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도시 미래전략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특히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구체화와 정원 속의 도시 세종,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끝으로 “이제 출범 11년을 지나 세종시가 지금까지 풍족한 재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시기가 도래했다”고 괴역한 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묻고 있다”면서 “갑진년 새해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으로 지속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도시 · 미래전략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설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고, 혁신을 통해 세종시 향후 10년을 준비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의회와도 더 철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태선 기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정정●

한밭교육대상 시상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29일
오전 11시 시
교육청 대강
당에서 열리
는 정부 포상
전수 및 한밭교육대상 시상식
에 참석.

2023년 종무식(주민 대상)



박희조 동구청
장 = 29일 오
전 10시 동구
청 대강당에
서 개최되는
2023년 종무
식(주민 대상)에
참석.

2023년도 종무식 행사



서철모 서구청
장 = 29일 오
후 3시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리는 2023
년도 종무식
행사에 참석.

2023종무식



정용래 유성구
청장 = 29일
오후 3시 대
전신세계 매
가 박스에 서
열리는 2023
종무식에 참석.

2023년종무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 29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년 종무식'에
참석.

LPG판매소 특별지도 및 점검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최근 대덕구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LPG 판매소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LPG판매소 8개소 대상으로 안전공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와 함께 LPG 용기 관리 상태 확인,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 표 작성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액화 석유판매소 법적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특별지도 및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민진을 위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희조 구청장 CES 2024 참관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찾아 미래 멀티미디어 기술 분야 혁신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CES 2024 참관은 대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서철모)에서 서구가 공동참관을 제안하며 이뤄졌으며,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7박 9일의 일정으로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이번 출장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첨단산업 유통망과 바이오 헬스 등 4차 산업 중심 산업단지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사이언스파크 개관, 토요과학교실 운영 등 성과를 기준 과학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2024 대전 0시 축제, 내년 8월 9일부터 9일간 진행

올해 미비점 보완 콘텐츠 경쟁력 강화



대전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대전 0시 축제'를 내년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열린 '대전 0시 축제'는 1993 대전엑스포 아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고 1739억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세계적인 축

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는 올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에 맞게 시대별 콘텐츠를 강화했다.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과거존은 관객 몰입형 체험 및

테크로 몰입 콘텐츠가 보강된다. 현재존은 지역 문화예술인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이 원도심 소극장·갤러리·지하상가 등 행사장 전역에 펼쳐지며 공연 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대전형 애드버타죽제의 정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존은 기존의 미디어아트 위주 관람형 콘텐츠에서 탈피,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과 과학기술의 재미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기존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3회에 걸쳐 진행된 길거리퍼레이드는 그 횟수를 늘리고 경연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향촌 풍성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전 꿈씨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태어난 꿈돌이는 온 가족이 총출동해 대구도 포토존을 구성하게 된다.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글로벌 K-POP 오디션 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제의 장도 마련된다. 관람객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로 무대를 방사형으로 재배치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과 그늘막 트레스 등의 시설도 확충해 관람 편의를 높인다. 이 밖에도 축제 기획상품 판매, 먹거리존·마켓존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엔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라며 "지역경제는 살리고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km)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개최되며, 행사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대전지부협의회

대전시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되어 28일 대전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주)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대전시 자치행정과 죄송수 담당 사무관, 임수이 주무관,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김기범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대열 회장은 "대전시에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범방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대전지부협의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학용품, 문화체험,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도 대전 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송병배기자

2024년 유성구 4대 혁신으로 미래 선도도시 조성 박차

창업·미술·돌봄·문화 등 4대 분야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창업·마을·돌봄·문화 등 4대 분야 혁신을 2024년 새해 구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미래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환기의 시대적 소명과, 민선 8기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2024년을 진단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성과에 안

주하지 않는 혁신의 자세와 실천, 유성의 장점과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정용래 구청장이 제시한 유성구의 4대 혁신은 ▲어온동·궁동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창업 혁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미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미을 혁신 ▲아이에서 노인까지 따뜻하고 쫌족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드는 돌봄 혁신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혁신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유성에서 지방자치·도시혁신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유성구는 이러한 혁신 전략을 통해 미래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참여와 동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중심성성(衆心成城)'을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자작성으로 선정했다.

중심성성은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루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견고한 성과 같다"는 뜻으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미래 혁신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담고 있는 시자성 어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작은 것을 바꾸면 전체가 바뀐다는 혁신의 자세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구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별 혁신으로 갑진년 청룡의 해를 '유성 비상(飛上)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는 2024년 1월 1일 오전 7시 보령봉(유성구 구릉동)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2일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는다.

김태선 기자

서구, 종합청렴도 2년 연속 대전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대전 유일 2년 연속 2등급

서구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대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는 평가를 이뤘다.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6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

시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업무관계자,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접수화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서구는 2020년, 2021년 4등급

에서 민선 8기에 접어든 후인

2022년 2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

했으며, 올해도 2등급을 유지하며

괄복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도와 청렴도 설문조사 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청렴 사전 공모전, 청렴 모아 부패 ZERO 캠페인 등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청장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토대로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해 종합청렴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의 치료 후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 병원이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병원 표준화시망비 및 위험도표준화 입원비 평가

충남대병원 'A 그룹' 받아

충남대학교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병원 표준화시망비 및 위험도표준화 입원비 평가'에서 모두 "A 그룹"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종합병원 급 이상 374기관(2022년)이 대상이며 각 의료기관의 의료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 지표로, 이는 충남대병원의 A 그룹 결과는 진료 수준의 전문성이 높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표준화시망비(HSMR)는 시망비가 낮은 기관(A 그룹), 시망비가 평균 수준인 기관(B 그룹), 시망비가 높은 기관(C 그룹)으로 구분하며 국가 평균 100보다 낮으면 시망비가 낮음을 의미한다.

충남대병원 표준화시망비는 국가 평균 100보다 매우 낮은 82.8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92.5, 충청권 108.9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이며, 이는 충남대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수를 산출해 평가한 것이다. 국가 평균 100과 비교할 때 충남대병원은 76.2로써 매우 낮은 재입원 수치를 보여 환자

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세마을지도자유성구노은1동협의회, 사랑의 백미 나눔 대전 세마을지도자유성구노은1동협의회(회장 노용호)는 지난 27일 오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20포(70만원 상당)를 노은1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치매 위계층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우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노용호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년·신년 쇼핑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최우제)은 2023년의 마지막 주말과 2024년 신년 첫 주를 맞아 다양한 쇼핑 행사를 제공한다. 방한의류 행사 뿐 아니라, 신년을 맞아 주방식기 복상품전, 그리고 새해를 맞아 전시·판매 행사를 진행된다.

이티스티나는 새해 맞이 기념으로 소스볼세트, 접시, 2인 티세트 등 다양한 인기 상품을 50%~70% 할인 판매 한다. 포트메리온 역시 보타니카 디너세트, 접시 세트 등 도자기류를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AMT 등 주물潘, 월, 낌비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해를 맞아 시즌오프 및 세일에 돌입하는 브랜드도 있다.

라코스테는 1월 2일부터 2023년 F/W 상

●정정●

2023 한중 실크로드 포럼



김태 흠 충남
도지사=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열
리는 2023 한
중 실크로드 포럼에 참석.

공주마이스터고 실습동 개관식



김지철 충남
도교육감= 29
일 오후 2시
30분 공주마
이스터고 체
육관에서 열
리는 공주마이스터고 실습동(가
운누리관) 개관식에 참석.

2023년 종무식



최재구 예산군
수= 29일 오
후 3시 주사홀
에서 열리는
2023년 종무
식에 참석.

2023년 종무식



이용록 충성군
수= 29일 오
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
년 종무식에
참석.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8일 소집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디북적출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제1차 기본계획에 시민·환경단체·시의회·관련 부서·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시민·환경단체 등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난 8월과 10월에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 등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4월 27일 7개 산단,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맷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과 지난 6월 5일 행복청, 교육청과 맷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초안에 반영했다.

이윤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기본계획(안) 보고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전문가 토론 패널로는 고용성 국토연구원 실장,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윤은주 토지주택 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내년 2월 중 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내년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시민 삶 만족도 전년과 동일

표본 1800가구 대상 '2023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걱정은 0.2점 줄어

올해 세종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7점을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행복 경향은 전년 대비 0.1점 오른 6.8점, 걱정은 전년 대비 0.2점 내린 4.4점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시민 생활의 변화와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관내 1,800가구에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5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항목은 ▲개인 ▲소득과 소비 ▲교육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5개 부문 57개 문항이다.

소득과 소비 부문 조사 결과, 2023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400만 원 미만' 16.9%, '200만~300만 원 미만' 13.6%, '400만~500만 원 미만' 13.0% 순이었다.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00만~200만 원 미만' 21.7%, '200만~300만 원 미만' 20.1%, '300만~400만 원 미만' 18.4%, '400만~500만 원 미만' 12.3% 순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55.5%였으며, 부채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 74.7%, '재테크 투자' 8.3%,

'사업·영농자금' 6.1%, '기타 생활비' 5.7%, '교육비' 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는 284만 원으로, 지난 2021년 24.9만 원 대비 3.5만 원 증가했고, 읍면동별로는 동(洞) 지역이 31.7만 원, 면 지역 20.9만 원, 조치원읍 18.7만 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조사 결과, 올해 가구의 '월평균 공교육비'는 10.4만 원, '월평균 사교육비' 43.9만 원 이었다.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1.4%였고, 교육비 부담 요인은 '보통교육비' 77.4%, '학교급식금' 12.2%, '기숙사비' 7.9% 순이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의 경우 만족이 61.1%, 보통이 27.7%, 불만족이 11.3% 순이었다. 상하수도·도시가스·도로 등 기반시설은 만족이 64.4%, 보통이 27.3%, 불만족이 8.3% 순으로 파악됐다.

통근하는 시민의 비율은 58.0%였고, 통근 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5.0%로 가장 높았고, 통학하는 시민은 13.4%였고, 통학 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56.5%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중 교통수단 종류별

이용 비율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민의 95.3%가 '자가용' 이용 경험이 있고, 만족이 36.2%, 불만족이 38.7%로 조사됐다. 불만족 이유는 '좁은도로'가 40.5%로 가장 높았다.

'시내버스' 이용 비율은 43.2%였고, 만족이 37.0%, 불만족이 31.4%로 파악됐다. 불만족 이유로 '배차간격 길'이 54.4%로 가장 높았다.

'택시' 이용 비율은 26.2%, 만족이 47.4%, 불만족은 51.6%였고, 불만족 이유로 '택시가 부족'이 74.9%로 가장 높았다.

'자전거' 이용 비율은 29.7%, 만족이 55.8%, 불만족이 18.3%였고, 불만족 이유로 '불법주정차·장애물'이 33.5%로 가장 높았다.

문화와 여가 부문 조사 결과, 증가 흐름 문화예술행사는 '콘서트' 29.2%, '음악회' 22.2%, '뮤지컬' 14.3%, '축제' 8.2% 순이었다.

특히 시민 중 지난 3년간 '세종축제'에 참여한 비율은 24.1%였고, 만족이 43.8%, 불만족은 18.8%로 조사됐다. '세종조치원복숭이축제' 관람은 17.1%였고, 만족이 39.9%, 불만족이 22.7%였다.

'조치원봄꽃축제' 관람은

15.3%였고, 만족이 49.8%, 불만족이 14.5%로 조사됐다. '세종 낙화축제' 관람은 11.0%였고, 만족이 38.5%, 불만족은 37.3%, '세종예술제' 관람은 10.5%, 불만족 비율은 10.8%였다.

문화예술시설 이용은 '세종호수공원' 이용 비율은 80.4%였고, 불만족 비율은 3.2%, '세종중앙공원' 이용은 50.9%, 불만족 비율은 3.2%, '이용다리(금강보행교)' 이용은 49.4%, 불만족 비율은 6.1%로 조사됐다.

올해 시민의 현재 여가활동 형태는 'TV시청' 33.3%, '스마트폰 사용' 21.5%, '관광활동' 10.1% 순이었고, 향후 원하는 여가활동 형태는 '관광' 31.4%, '취미·자기개발' 13.7%, '스포츠 활동' 11.5% 순이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로 세종시민 생활의 변화와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김태선 기자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상안전요원 10명 배출



예산군 공공 시설 사업소는 지난 27일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 안전 요원 10명을 배출했다.

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수영 안전 요원 10명을 배출했다.

수상 안전 요원은 해양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기초적인 수영 능력을 갖추고 수영장 안전 요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사업소는 안전 요원 인력 확보와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요원 전문 자격 과정 양성반을 개설해 10명의 수상 안전 요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료 자들은 29일에 걸친 16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과 평가, 1일의 실습 교육을 병행했으며, 수상

안전 요원과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전문 지원봉사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영장 안전 관리 및 인력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습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1100년 기념관은 지난 9월 21일 수영장을 개장해 현재 까지 3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으며, 헬스장과 함께 관내 명실상부한 체육·문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목표액 대비 106% 달성

홍성군, 각계각층 이웃사랑 실천 행렬 이어져

홍성군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사업이 목표액 대비 106%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세상을 가치있게'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27일 기준 모금액은 5억 4천 3백만원으로 목표액

포함) 200만원 ▲다해조경(대표 이규한) 200만원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 1,000만원 ▲홍성군4·연합회(회장 인성환) 200만원 ▲홍성성결교회(목사 이춘오) 1,000만원 ▲세석건설(대표 노종세) 1,000만원 ▲홍주여객(대표 이실) 500만원 ▲홍주문화관광재단(최건환) 300만원 ▲주(주)충청(대표 박성순) 500만원 ▲프리임유치원아 및 임직원 일동 160만원 등의 성금이 기탁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캠페인 기간에도 나눔과 기부의 행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를 희망하는 분은 홍성군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복지회관(주민지원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지원 생계&8231; 의료비, 명절 위문금, 월동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이 관내 전체 목욕장 업 13곳에 대한 광중 위생 관리 및 전기 등 안전 관리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조치원 대중목욕탕 감전 사고와 관련 예산군에서도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고 지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목욕장 업 안전 관리 홍보를 28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내년 1월 29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1개 텁 7명 위생팀 2, 안전 점검팀 2, 안전 관리 자문단 3을 투입해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 업 자가 안전 점검표에 의한 △광중 위생 부문 △전기 안전 부분 △스위치 등 4개 부분 기본

이에 군은 문어발식 배선을 피하고 손상된 전선은 교체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스위치를 잡지 말고 전기 코드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배전반 등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전기가 통할 만한 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배선은 보호관을 사용해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빛·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해 선 안된다.

비단이나 물건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 기구에는 배선을 분류해 배선 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목욕탕은 누전될 경우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고 작은 누전도 치명적인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목욕탕 내 펌프 또는 운도계 등 전기 시설 등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현재 행정 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는 목욕탕 안전사고 관련 항목이 없으나 전기 안전 관련 국민 행동 요령에 따르면 전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도·NH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신보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협약



충남도가 스마트팜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협약'을 맺었다.

도는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NH농협은행·충남 지역부부·하나은행·충남북영업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청년농업인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협약'을 맺었다.

우리/동/네

천안시, 올해 기관표창 역대 최다…78건 수상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표창 수상 등 행정력 입증



천안아산공무원노동단체발전협의회

‘지역 사랑나눔 기부’ 실시

천안아산공무원노동단체발전협의회(이하 ‘천아공위’)는 지난 27일,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지역 사랑나눔 기부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지역의 기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진행되었다.

구철호 천아공위 위원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노조가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천아산의 공무원노동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에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아공위는 2022년 12월 지역 7개 공무원 노동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안전사고 등 긴급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주)호재메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천안시복지재단에 백미 전달

(주)호재메탈(대표 오창환)은 28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백미 1,080kg(3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행)에 전달했다.

(주)호재메탈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미를 기부했으며, 후원물품은 아동양육시설인 익선원에 지원되어 아동들의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창환 대표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맡거름이 되어주고자 직원들과 마음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운행 이사장은 “아동·청소년들의 밝은 성장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희망을 선물해 주신 (주)호재메탈에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재메탈은 지난 10월 아동 양육시설 기능보강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조손가정 2가구에게 지정결연을 통해 사랑을 전하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성정2동, 2023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성정2동(동장 김구연)은 지난 27일 2023년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8개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 동정에 협조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힘써 준 자생단체 회원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됐다.



쌍용2동 노인회,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기부

쌍용2동(동장 김광섭)은 28일 이웃돕기 성금 100여 만 원을 쌍용2동(동장 김광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쌍용2동 노인회가 선별과 나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해 동안 모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올 해 동안 각종 분야별 평가에서 기관표창 78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수상 내역을 보면 혁신과 적극행정 등 행정 주요부문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최우수기관(기초자치단체 1위)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충청남도의 혁신업무 우수기관, 공공서비스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 공공자치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또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

가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집합 우수기관으로 각각 장관 표장을 받으며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 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주관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정부포상 받는 폐지를 거뒀다. 시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시책을 추진해 국무총리 표장을 수상했다.

경제분야에서도 괄목할 성적을 보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우수상과 지역보건의료, 국가결핵관리, 간염병 대응 및 관리, 암관리, 방문건강 관리,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보건 관련 분야에서 다수 표장을 받으며 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불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는 지방세와 주민참여예산 분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비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도 인정받았다.

인천·보건 분야에서도 재난대비 상시훈련, 자연재난 대응, 화재 사고 대비체계 구축 등 안전분야 우수상과 지역보건의료, 국가결핵관리, 간염병 대응 및 관리, 암관리, 방문건강 관리,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보건 관련 분야에서 다수 표장을 받으며 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이동진화 환경조성·시간제 보육 발전 유공, 도로정비평가 시

군도분야

최우수, 도시 재정조 한마당 사업추진 우수,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우수시군 기관 표창 등 각종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우수한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속에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거둔 결과”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도시공사, 목욕탕

전기안전 특별점검 실시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는 지난 26일 사업장 내 목욕탕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발생한 세종시 감전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국민체육센터, 한들문화센터의 목욕탕 시설을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점검, 전열저항 측정 등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목욕탕뿐만 아니라 수영장, 사우실 등 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한동흠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점검을 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순천역

‘KR스타트업라운지’ 준공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유흥기)는 순천역에 중소·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회의 및 업무공간인 ‘KR스타트업라운지’ 공사를 29일 준공하고 내년 1월 중 문을 열한다고 밝혔다.

호남본부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남동부권 교통·경제·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역 사전구 2층에 80m² 규모의 ‘KR스타트업라운지’를 조성함으로써 철도역사를 창업과 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했다.

순천역 ‘KR스타트업라운지’는 공역역, 대전역, 베스코역, 오송역, 동탄역에 이은 6번째 업무공간 지원시설로 창업진흥원의 창업공간플랫폼(www.kr-startup.go.kr)에 가입한 중소·창업·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흥기 본부장은 “순천역 KR스타트업라운지를 통해 많은 중소·창업·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어기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시설물의 공공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방안을 다각화해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천안야구장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등급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에 기여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는 천

안야구장 공중화장실이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란 편의시설이나 이동편의시설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천안야구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고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

적 사항 보완을 통해 올해 12월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33년 12월까지 10년이며, 공사는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한동흠 사장은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아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점검을 하고 있다.

의·자문단

이날 첫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회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 소통의 자리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시가 지난 27일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기증 장려 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시의원 2명, 의료계 3명, 시민단체 2명, 종교계 3명, 언론계 1명, 당연직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장기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 장기기증 운동의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심

천안시, 장기기증 장려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총 13명으로 구성…2년간 장기기증 관련 사항 심의·자문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장학기금 기탁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어려운 학생들 위해…(재)천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2000년 올해까지 총 1,100여 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부금은 총동문회 제23회 박민순회장 취임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

문회는 2000년 올해까지 총 1,100여 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부금은 총동문회 제23회 박민순회장 취임

후원금 전액이다.

박상돈 이사장은 “천안의 학생들이 최고경영자 동문들의 훌륭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의 인재로 기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새마을금고(이사장 이재우)는 29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천안시 쌍용2동(동장 김광섭)에 전달했다.

천안새마을금고는 충남 21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3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이정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우 이사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 가구들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회에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천안 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광섭 동장은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천안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쌍용2동 도움이 필요 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 했다.

천안=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인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전건축사협회, 대덕구 오정동 LPG 폭발 피해주민 돕기 성금 기탁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8일 대전건축사협회(회장 박태식)로부터 대덕구 오정동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 폭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역량 강화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이면우)가 지난 27일,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대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과 치안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시간을 가졌다.



당진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 수여 당진소방서는 28일, 2층 서장 접무실에서 '2023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소방서장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업소는 '당진 롯데시네마'와 '미즈맘 산후조리원' 2개소다.



아산시 관리동 어린이집 연합회, 위탁 보호아동에 성금 후원 아산시는 27일, 관리동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박정례)로부터 보호아동을 위한 성금 3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관내 위탁보호 대상 아동가정의 보육비 및 학습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영동시대 위드하이어로 대전·세종' 대전 관내어려운 이웃에 리면 기부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동시대 위드하이어로 대전·세종'은 29일~31일 임영웅의 두 번째 전국투어 'IM HERO(이임하이어로)' 대전 콘서트를 기념하며 대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리면을 기부했다.

금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 시설 위치와 사용법 숙지해야"

'공동주택 피난 설비 사용법'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과 복도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해 복도나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 피난 시설에는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완강기 등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누구나 쉽게 부숴 옆 세대로 털출할 수 있도록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며 대피 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로 화재와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완강기는 가슴벨트를 착용 후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창밖을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진종현 서장은 "평소 피난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난 시설 사용법을 익혀 화재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이정복기자

"못 믿을 건강식품" 허위표시 집중 단속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전반 단속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권리인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이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 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로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이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홀샵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즐 등) 15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학습용 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아산소방서, 연말연시

화재예방 당부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안전한 한 해의 미루리 및 시작을 위해 각종 화재 및 인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연말연시 화재안전수칙은 ▲난방기구 및 화기 취급기구 사용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제거 ▲외출 시, 취침 시에는 각종 조명기구 끌어그 뽑기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하기 ▲캠핑 등 레저 활동 시 난로, 화로 등 화기취급 기기 주변 소화기 비치하기 등이다.

구동철 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연말연시 기간은 각종 행사를 통해 유동 인구가 많아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분들이 안전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 119구조대 '전국 최고'

태안·천안서북소방서, 소방청 평가 올해 '최강구조대' 선정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청 주관 올해 '구조대원 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평가에서 태안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 119구조대가 전국 최강구조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평가는 전국 200여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성·항상·역량 강화 등 3개 부문 9개 지표를 평가해 구조대 3곳을 '최강구조대'로 선정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선병원,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최종점수 952 점으로 전국 130개 기관 중 22위

대전선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 기관 최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대전선병원의 최종점수는 95.2 점으로 전국 130개 기관 중 22위를 차지했다.

영역별로는 ▲안정성 영역 6개 지표 중 6개 지표(감염관리의 적절성,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전원 사전조치 구

축, 환자분류의 신뢰수준, ▲효과성 영역 7개 지표 중 4개 지표(전담 의사, 전담 전문의, 전담 간호사, 전담 의사의 전문성), ▲환자중심성 영역 2개 지표 중 2개 지표(응급환자 전용 진료상담실 운용, 환자 민족도 조사의 적절성), ▲적시성 영역 3개 지표 중 3개 지표(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설시간, 체류환자지수) ▲기능성 영역 5개 지표 중 2개 지표(최종 치료 제공률, 협진의사 수준) ▲공



공성 영역 5개 지표 중 4개 지표(NEDIS 충실히, 지원정보 신뢰도,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재난대비 및 대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송병배기자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충남테크노파크, 도내 우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재)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원장 서구석)는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은 지난 5월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된 충남도의 주축산업(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 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 60개 시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인증 및 시험분석 △특허 지원(국내/외) △디자인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최대 3,0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개별 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총 103건으로 기술개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지원, 인증시험 분석지원)이 43%를 차지했으며, 사업화 지원(디자인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이 36%, 기타 컨설팅 및 특허 지원 21%의 비중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화 촉진 지원으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 및 고용증진의 성과를 냈다. 지원사업 60개 사 중 우수성과를 보인 기업은 10개 사(△주유철호솔루션 △㈜블루네트웍스 △㈜세종기술 △㈜코로스전지 △한양로보티кс△㈜유니테크 △㈜승정 △㈜유알티자동화 △㈜풀레드 △㈜웹테크노스)로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성과를 기록했다.

충남TP는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지난 13일에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하여 산·학·연·관·지역 기업 이해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3년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 세부 6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와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하였으며 성장사다리 단계별 비R&D 지원 우수기업 시례 발표를 통해 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충남FTA 통상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지원사업 소개 및 특강을 진행하고, 2024년도 추진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대전충남병무청, 육군 제1970부대에 위문품 전달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전달

방문해 성인 문해반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받아 군부대에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되새겼다.

홍소영 청장은 “응원메시지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전 청춘학교를

송병배기자



대전충남병무청, 육군 제1970부대에 위문품 전달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전달

대전충남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8일 육군 제1970부대를 방문해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응원메시지를 군부대에 전달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대전 청춘학교를

방문해 성인 문해반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받아 군부대에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되새겼다.

홍소영 청장은 “응원메시지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충남 공립단설 유치원 교사83.1% “돌봄 책임교원제 폐지해야”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동의 없이 초과근무 지시하는 유치원 감독하라”

충남도 내 책임교원제를 운영 중인 공립단설 유치원 교사의 83.1%가 제도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 책임교원제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그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사를 선정해 하루 11~12시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 승진 가능성과 함께 주는 제도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공립단설 유치원 3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5명 가운데

제 83.1%(14명)가 ‘돌봄 책임교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5.7%(27명)에 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2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돌봄교실 책임교원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2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돌봄교실 책임교원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유치원 돌봄교실 전담

인력이 있어도 관리자가 아닌 교육과정·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정규교사를 ‘관리교사’, ‘책임교사’로 세워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하다’며 ‘현장에선 마치 누군가 승진점수가 필요해서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책임교원을 하지 않으면 책임 없는 교사인 것처럼 돌아가는 분위기’와 윤번제 초과근무의 폐지, 교사들의 동의 없는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유치원 대상 지도·감독, 유치원 돌봄(아침·저녁·온종일) 운영 시 교사의 지속·고정적인 초과근무를 배제한 안전·책임관리 매뉴얼의 배포를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은 28일 제2회 회의에서 김병관 교육장, 김기웅 서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서천군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은 28일 제2회 회의에서 김병관 교육장, 김기웅 서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서천군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었다.

서천군교육행정협의회는 서천교육지원청과 서천군이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

함으로써 서천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2023년 정기회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사업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부서간 서로 긴밀한 정보공유와 소통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천=이정복기자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 242개원 우아 대상 총 173억원 지원

유아학비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확대 지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공·사립 유치원 242개원(공립 104개원, 사립 138개원) 1만 89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4분기 유아학비 173억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7. 1. 1.~2022. 2. 29. 출생)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국적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비 10만원, 방

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 대하여 지원했던 유아학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며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 라오스 현지 보르낭가우 중등학교에 PC 22대 설치 지원

올해 라오스 교육정보실 구축 성황리 마쳐



리대를 전달 받았으며, 장애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봉산면 명예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을 위한 생리대를 기부하여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쁘다. 꿈을 키워나가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따뜻한 말을 전했다.

예산 꿈빛학교 교장(김성희)은 “마을 교육 공동체의 따스한 손길들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에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월경 문화가 자리 잡는데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예산=박제화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라오스 현지 보르낭가우 중등학교에 교육정보실(PC 22대 설치)을 구축하고, 현지 교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정보교육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8월 라오스 교원 22명을 충남교육청으로 초청하여 인공지능 교육 연수와 함께 정보교육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올해 교육정보화 시설 구축교인 라오스 보르낭가우 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구축과 연수를 추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현지 교육정보화 연수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정보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라오스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7~2019년 교육정보화 시설 구축교(3교)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등 라오스 현지 정보교育 활성화에 기여했다.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라오스를 방문해 교육정보실 구축과 정보교育 연수를 실시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비대면 연수로 진행한 바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현지 교육정보화 연수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정보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라오스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양교육지원청, 2023 청양교육 성과보고회

청양 교육력 제고와 민·관·학이 함께 동행하는 청양교육 나눔의 장



보람중학교(교장 김진성, 이하 보람중)는 12월 28일에 대만 竹東(Zhudong) 국민중학교(교장 Hua Zhu) 대표단 27명이 방문하여 국제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세종 국제청소년포럼 참석 차 세종시를 처음 방문하였던 竹東(Zhudong) 국민중학교 방문단은 당시 프로그램에 매우 민족하고 견학차 들렀던 보람중학교 방문을 희망하여 재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탐방, 보람중학교 종합예술제(이하 보람제) 학급공연 및 대만 문화 공연 공유, 대만 문화 부스 운영, 보람제 학급 부스 체험, 학교 급식 체험, 한국의 겨울 계절 체험하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그간 온라인으로 교류하던 제한적 경험을 대면 교류로 확대하여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졌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울 기회를 얻었다.

세종=김태선기자

동영상 시청 ▲2024 청양교육 중점사업 발표와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2023년 교육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2024년 중점 교육사업을 공유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교육공동체들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되었다.

자지만 알찬 청양의 교육력을 모으는데 교육가족과 지역 유관기관, 지자체 모두가 함께 뜻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은 “성과보고회는 마무리가 아닌 시작으로, 청양교육가족의 연대가 짙트는 자리가 되어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밀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청양의 모든 교육력을 모아 함께 성장하며 동행하는 청양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서천교육지원청-서천군, 서천교육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

2023년 서천군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다.

향후에도 ▲지역인재 육성 ▲교통안전 및 통학 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교육시설 확장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 현안 해소와 정책사업의 발굴에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날 김기웅 서천군수와 함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김병관 교육장은 “군과 교육지원청이 오늘을 주축으로 삼아 만남과 협력,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지역 사회와 교육 수요자가 함께 만족하는 더 나은 서천 교육을 만들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천=이정복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 여건 맞는 적정 규모화 공론화 위한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구축 협의회



체, 학교 관계자, 지역활동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을 위해 디자인하게 구성하여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지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미래형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식 교육장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학생 개별성에 맞춘 다양하고 혁신적인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원, 시의원, 지자

논산=김성구기자

아산시, 2023년 평생교육 협의회 개최

평생학습 주요 추진 성과 공유·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논의



센터 프로그램을 흡수·통합해 기능 대전환을 앞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습시설 확장,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습동아리 발굴·지원 확대,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문해교육 학습시간 확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료 조사 시행 등을 요청했다.

오늘 평생학습관장은 “평생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평생 학습으로 더 행복한 아산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 평생교육 협의회는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의장인 박경귀 아산시장과 박서우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아산=리향주기자



충남대병원, 새싹지킴이 병원 아동학대 바로알기 캠페인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경희)은 지난 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본관 1층 로비에서 2023년 새싹지킴이 병원 아동학대 바로알기 캠페인을 열었다.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道, 연무읍 일원 580필지 87만여 m² 재지정…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m²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m²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m²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m²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 운영

당진시, 동절기 농작업 기간 케양, 의심 증상 등 전염원 제거 당부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12월부터 4월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과수화상병 전염원 제거와 지역 간 환자 차단을 당부했다.

과수재의 코로나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겨울철 오래된 케양 주변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개화기에 곤충이나 벌레를 통해 꽃의 암술대로 전파되어 급속도로 증식하는 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양 증상을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당진시는 내년 4월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정 기간 중 과원 예찰 및 케양 제거 추진 ▲사과·배 과원 케양 제거 실적 및 현장 점검 ▲농가 인지 교육 및 청결한 과원 관리 집중 홍보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케양 제거 기간을 통해 화상병 발생 면적(2021년 5.5헥타르(ha) → 2022년 4.1헥타르(ha) → 2023년 3.3헥타르(ha))이 급격히 감소해 겨울철 케양 제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체 점검반 운영을 운영하고 중



점기간 동안 현장점검과 농작업자 교육, 케양 제거 요령, 농가 자가 예찰과 의심 주신고를 통한 집중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서남부 농촌지역 생활 기반 조성 본격화



배재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전창업보육협의회 우수상 수상



배재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대전시 주관 'DABIA(대전창업보육협의회)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했다.

도 배재대 창업보육센터 박은비 매니저도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해 창업지원 저력을 인정받았다.

대전창업보육협의회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DABIA 성과보고회'를 열고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주STH 체근석 대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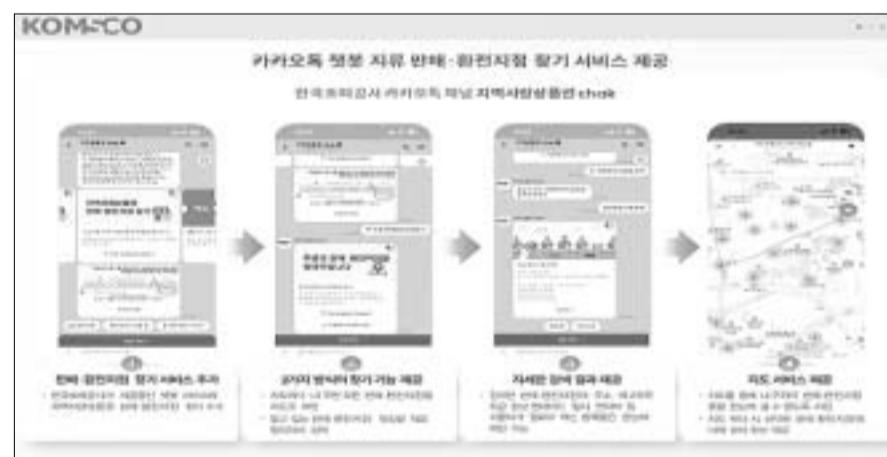
주STH는 올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료전지용 고정성 카본촉매 딥지화 기술' 특허를 이전받고 한국과학기술지주(KST)와 미래과학기술지주(주)에서 5억원을 투자받아 설립된 회사다. 연료전지용 고내구성 탄소 담지체 제조, 나노 백금합금 층매 및 수전해용 층매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용 고성능·고내구성 나노 백금합금 층매 제품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체근석 주STH 대표는 "회사와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면서 여러 파트너와 협력해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고내구성 백금합금 층매 양산공정 구축과 소재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고용창출 및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정보' 대국민 개방 나선다

조폐공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 편의 제공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치단체를 통해 수집한 30만 건의 판매·환전 지점 관련 데이터 중 국민편의 도움 되는 정보를 재분류해 공공데이터포

털을 통해 오픈한다. 개방하는 항목은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처별 재고현황 ▲판매정책현황 ▲판매지점현황 ▲환전지점현황 등 총 4종이다.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찾기가 쉬워지며,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등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폐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화 하고,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공개뿐만 아니라 지도기반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톡 내 '지역상품권 chak' 채널을 추가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찾기와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지점 찾기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산림복지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꾸준한 상승세로 91.8점 받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이며 2016년 이후 꾸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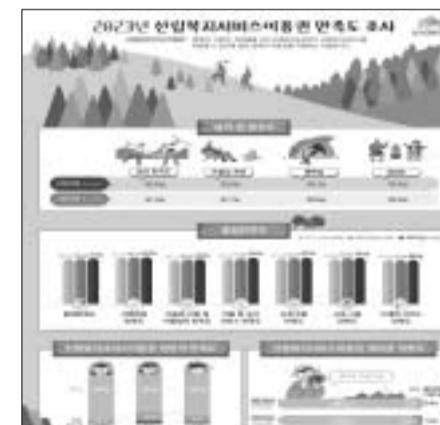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두 증명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본인 소유의 KB국민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송병배기자

예산군 최우수기관 선정

예산군,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쾌적한 환경 조성 '총력'

예산군은 2023년 충청남도 도로 사업 및 손실 보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도로 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견실 시공 및 업무 역량 강화

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평가를 거쳤다.

이번 평가는 ▲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집행 실적 ▲사업 추진 내실화 ▲성실 시공을 위한 노력 등을 서류 및 합동 점검반의 현장 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그 결과 군은 도로 사업 분

예산=박재희기자



노사민정협의회 3차 실무협의회 열려

홍성군, 노동문제 슈퍼해결사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활동 A+

홍성군이 2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한해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실무위원회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일터혁신, 행복한 일자리 공동체 실현을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한국폴리텍 대학 홍성캠퍼스, 홍성공업고등학교,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10여 명의 노사민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있었던 노사민정 협의회의 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공유하며

김정환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체해 드리며,
체결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테슬라타운 7층

www.daejeontoday.com

동정

종무식



오성환 당진시장
= 29일 오후 4시,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종무식'에 참석.

종무식



가세로 태안군수
= 29일 오전 10시
태안군청 대강당
에서 열리는
'2023년도 종무
식' 행사에 참석.

종무식



김돈곤 청양군수
= 29일 오전 9시
청양문화예술회
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3년 청
양군 종무식에 참
석.

태안군 '지역발전 청신호'

내년 정부예산대거 확보

국도비 확보에 앞장서온 태안군이 올
한해 3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
며 내년도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밝혔다.

태안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올해 2906억 원 대비 3119억 원(10.7%)
늘어난 3217억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교부세 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내년도 군이 계획한 사업들이 무난
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재원 3217억 중 국비는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890억 원, 도비는 29
억 원이 늘어난 615억 원이다. 아울러 지
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과 타기관 사업
비 632억 원도 함께 확보했다.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은 △하수시설
개선 사업(11개소) 74억 원 ▲일반농
어촌개발사업(6개소) 72억 6천만 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3개소) 31억 3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조성사업 39억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35
억 4천만 원 등이다.

또한, 국가기관 사업은 ▲국도77호선
(안면~고남) 4차로 확장 260억 원 ▲원
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89억 원 ▲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14억 원 등
이다.

공모사업 선정 성과도 눈부셨다. 태안
군은 올해 3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6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
년 대비 무려 22%가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
성 공모 선정으로 265억 원을, 도시재생
공모 선정으로 260억 원을 각각 확보했
으며 이밖에도 ▲중규모 LPG 배관망 구
축 121억 원 ▲누동2리 거점개발 86억
원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60억
원 ▲근소면 청정어장 재생 50억 원 등
각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군은 당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정
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상했으나 내년 계획한 정부예산이 대부
분 확보됨에 따라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
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도 '천하태
안'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국비 확보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
도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
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올 한해 성과 '괄목' 민선8기 기대

태안군, 올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농·어업 발전 등 각 분야 성과 두드러져

태안군이 올해 안흥진성 개방과
태안읍성 복원 등 군정 각 분야에
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내년도
지역발전의 전망을 밝혔다.

가군수는 "올 한해 6만여 군민들의
성원 속에 마침내 '50년의 숙
원' 안흥진성과 백화산·삭선리 군
사 보호구역 해제를 가시화하고 도
시재생 공모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도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며 "군
민을 향한 1300여 공직자들의 노력
과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군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올해 태안읍성 동문 복
원을 마무리해 읍성의 600년 얼을
되찾고 군민과 함께 안흥진성과 백
화산·삭선리의 군사시설 보호구
역 해제에 앞장섰으며, 내년 개관
하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해
양치유 대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나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개관한 '태안군UV
랜드'의 경우 25개 기업 및 기관에
서 총 25회에 걸친 실증 연구를 진
행하고 전국 드론레이싱 대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K-드론의
메카'로 나아가고 있으며, 태안 경
제의 심장이 될 '해상풍력발전단
지' 조성 사업도 현재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비 120억 원 포함 총 사
업비 265억 원이 소요되는 국토부
주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
업' 공모에 충남 최초이자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원도심
및 기업도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했으며, 12월에는 태안을 일원이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 대상지
로 선정돼 사업비 260억 원을 확보

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안흥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격
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
진을 통해 태안의 지정학적 잠재력
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태안군은 올해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 수당을 적기 지급
하고 소규모 어가·어선원·수산
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설하는 한편,
구이장터 운영 등 '문화 관광형 시
장 육성 사업'을 통해 서부시장 일
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태안 제2동
공단지 조성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키로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
어촌 조성과 태안 경제의 근간 다
지기에도 힘썼으며,

공설묘연 봉안당 확충 사업 준
공과 어르신 돌봄센터 착공, 안면
도 영도항 전망대 조성,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 7년 연속 선정, 전
국단위 체육대회(태권도·마라톤)
개최 등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
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 속에, 군은 올해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지적재
조사 사업 추진 최우수 △지역 자
살예방 사업 우수 △농업인교육 우
수기관 선정 등 총 26건(중앙정부 9
건, 충청남도 13건, 기타 기관 4건)
의 대외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한
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가세로 군수는 "올 한해에도 태
안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
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태안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천하태안' 건설로 민선
8기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
도록 내년에도 공직자들과 함께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2023년 빛낸 10대 성과 선정

1위에 '당진시 인구 17만 명 돌파' 선정

당진시가 2023년 시정 업
무를 마무리하며 당진을 빛
낸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올해 10대 성과는 각 부서에
서 제출한 우수사례 28건 중
6건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
해 선정하고, 시의회 추천 2
건, 시 자체 선정 2건이다.
시민이 선정한 우수성과
6개는 ▲당진시 인구 17만
명 돌파 ▲소아·아간응급진
료센터 개소 ▲투자유치 4
조 6,048억 원 달성 ▲비티
칸 성 베드로 대성전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비
457억 원 확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이다.

시의회 추천 2건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3관왕 달성 ▲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이며, 시 자체 선정 2건은 ▲양해각서(MOU) 체
결국 몽골 지자체 계절근로자 성공적 도
입▲도심 속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이다.

주민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위는 '당진시 인구 17만 명
돌파'가 선정됐다. 당진시가 인구 17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이며, 2012년 시 승격 이후로는 처음이다.

두 번째 10대 성과는 '소아·아간응급진료센터 개소'이다. 올해 4
월 개소한 센터는 소아·아간응급진료센터 3인을 배치하고 의료취약 시간대
인 야간에 운영해 11월까지 누적 이용자가 5,261명에 달했다.

활짝 있는 당진경제 우수 성과로는 투자유치가 선정되었다. 시
는 올해 19개 사, 4조 6,048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
였으며, 20만·30만 이상 자족도시 성장을 위한 지방 도시의 초석을
다졌다.

생활 속의 문화·체육 우수성과는 '비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이다. 2023년 9월 아시아인 최초, 수도회 창
설자가 아닌 사제 성인 최초로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되었다.

풍요로운 농어촌 우수성과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
비 457억 원 확보'이다.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
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 농촌협약(국도비 324억 원), 농촌공간정비
사업(국도비 117억 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16억 원)
이 선정되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우수성과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대
상지 최종 선정'이다. 전국 해양경찰 교육을 책임질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은 연간 7,000여 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교수와 교
직원 등 200여 명이 상주한다. 학습을 일원 206,145m², 총사업비
1,700억 원(전국 국비)으로 2027년 개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3관왕 달성, 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양해각서(MOU) 체결국 몽골 지자체 계절근로자 성공적 도
입, 도심 속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이 10대 성과로 선정되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칠갑산얼음분수축제 현장 사진점검

얼음이 녹지 않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축제로 '충남의 알프스'에서
만나는 겨울왕국'으로 입소문이
나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얼음 썰매 ▲눈썰매 ▲얼
음 블루레이와 같이 신나는 썰매
체험 ▲군밤 굽기 ▲빙어 잡기 ▲
트랙터 깡통 얼자 등 체험 거리가
기득하고 매년 주제가 바뀌는 ▲대

형 눈 조각 ▲얼음 분수 ▲이글루
등 불거리 또한 풍성한 축제다.

2024년 축제는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정식 개장되며, 입장료는
1인 1일 종일권 9,000원, 눈썰매 포
함 종일권 2만 9,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군내에서
첫째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철저
한 안전관리를 거친 축제로 진행해
야 한다"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축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갑진년(甲辰年) 새해 '해맞이 행사' 열려



아산시는 2024년 1월 1일 오전 06시 50분부터 남산 애보공원 일원

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해맞이 행
사를 개최한다.

아산시민의 빌전과 안녕, 화합을
기원하는 이날 행사는 새해를 여는
티악그룹 '고리'의 미디어 모듬북
공연과 아산시립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새해 인사, 충남아산
프로축구단의 새해 출전 각오, 해
오름 순간에 맞춘 해맞이 폐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일출 감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여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도 마련된다.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아산시새마을회에서 떡국을, 하나
은행 아산금융센터에서 떡을, 아산
청년회에서는 어묵을 준비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청양사랑인
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돈곤 군수,
이하 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행렬
이 연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양읍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회(회장 복승수, 부녀회장 성수
현)는 28일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200만 원을 맡겼다.

또 칠갑산 동쪽 4개 면 축산농가

모임인 한사모(회장 윤동찬)는 하
루 앞선 27일 장학회에 2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군민과 출향인, 지역기업 등

주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서 기금 200여억 원을 조성, 매년
300여 명의 지역인재들에게 13종
류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8개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장학회로 기부된 장학금은
지난해 기탁액 3,890만 8,000원보다
46% 증가한 5,675만 6,000원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온천초 포장마차 철거 불가피'

27일, 박경귀 시장이 '시장과 시
민의 만남의 날'인 아산행동을 위
해 열두 번째 시민들과 만났다. 이
날 박경귀 시장은 12월 중 접수된
총 4건 중 온천초등학교 남쪽 인근
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
과 대화를 나눴다. 미채택 3건은 해
당 부서에서 면담을 통해 해결했
다. 포장마차 업주들은 온천초 인
근 포장마차 철거 계획에 따른 대
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포장마차들은 수십 년

간 도시계획도로(청운로) 84번길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었으며,
시와 업주들은 2019년 1월과 지난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하지만 포장마차 업주들
은 코로나19로 인한 영

우리/동/네

2023년 시정 각 분야 다양한 결실 거둬

가설건축물 원스톱 민원 처리 추진

부여군, 가설건축물도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한 번에 처리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민원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관계법령의 인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은 하나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의미한다.

가설건축물은 복합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기를 사전에 득한 후 군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청 시 필요한 농지법, 산지관리법, 히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능동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해 민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제로 등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서천군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외부체감도)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체감도)가 응답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 시책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합산해 1~5등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76.0점)의 보통 수준에 머물렀던 서천군은 올해 전년 대비 3.2점이 향상된 2등급(79.2점)으로 전국 상위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외부체감도는 군 평균 80.7점 대비 7.7점 높은 88.4점이며, 부패경험 응답에서 제로(0)를 나타내는 등 군정에 대한 외부 민원인의 청렴체감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청렴노력도 부분은 82.3점으로 군 평균 대비 7.6점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취약 분야 및 청렴 대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는 87.5점으로 군 평균 대비 15.5점이나 높아, 군수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청렴 정책 추진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내년에도 및출형 청렴 교육 강화, 청렴만족도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매뉴얼 수립, 익명신고 모의 훈련 활성화, 강도 높은 복무 감찰, 군민 친절서비스 교육, 고종 민원 처리실적 점검 및 평가제 운영 등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로 나타났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반부패 행위 균질화와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기업인의 날 행사 열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7일 관내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가 참여한 가운데 '부여군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여군기업인협의회(회장 전용관) 주관으로 박정현 군수와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기업인과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공동발전을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부여군수 표창은 ▲(주)한길 차재영 대표이사 ▲주비에스 부여공장 김춘영 대표이사가 받았고, 부여군의회 의장 표창은 ▲(주)대성산업기계 송상현 대표이사 ▲(주)대명 철강 홍석호 영업차장, (사)부여군기업인협의회장 표창은 ▲(주)충남아스콘 최용우 이사 ▲하나은행 안호림 차장이 수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여군도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계룡시, 2023년 개청 20주년... 인구·예산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 이뤄

2024년에는 그 동안의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100년 향한 시정 펼칠 것

계룡시(시장 이중우)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2023년 한 해동안 시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결실을 거두며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향한 기반을 튼튼히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2003년 '충청남도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16번째 자치 단체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3만 113명에 불과했던 계룡시 인구는 23.11월 말 기준 4만 6632명으로 50% 증가했으며, 예산 규모 역시 400억 원에서 3007억 원으로 625% 증가하는 등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시는 이러한 20년 간의 성장을 자양분으로 삼아 2023년 한 해 동안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실현을 위한 다양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배려한 정주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 인성을 위해 24시간 연

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자연재난 대비한 재난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2023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충남도내 1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A등급 ▲2023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선정 충청권 1위 ▲2022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우수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일의 안전 도시임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생 학습 도시 계룡'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평생학습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시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공존과 배려의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별 평생학습 지원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8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3 계룡군문화축제'를 통해 국방수도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군문화축제라는 명칭에 걸맞게 ▲장갑차, K-9자주포 탑승 ▲국방체험관, 항공우주 특별전시관 ▲병영훈련 체험 ▲드론 레이싱 ▲군사경찰 모터사이카 탑승 체험 등 군문화를 소재로 하는, 군문화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계룡군문화축제는 지난 4월 대

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시는 축제 기간 중 제 안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시계문화체험관 조성 관련 국·도비 확보 및 사계고택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시민 목소리 경청 및 소통 강화 ▲향토산 치유의 숲 개장 ▲광야실 천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중우 시장은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 계룡시의 역사와 새롭게 쓰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내딛는 길이 비론 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계룡=김성구기자

동정

이임식



박정현 부여군수= 29일 오전 11시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열리는 제29대 소명수 부군수 이임식에 참석.

종무식



김기웅 서천군수= 29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종무식에 참석.

계룡시 모범납세자 69명 선정

도운영시설 무료 이용·입장등혜택 제공

계룡시(시장 이중우)는 2023년 모범납세자로 69명(개인 48명, 법인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률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서 개인 연 350만 원 이상, 법인 매년 15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 혜택과 시·군 공영주차장,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논산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타사례(장려 수상)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운영 및 보조사업별 자부담 의무비율 기준 마련 예산설 ▲집정호 주변 토지이용 규제 단계적 해제 · 논산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미래전략실 ▲무인정보단말기 '어렵지 않아요, 키오스크와 친해져요' 디지털정보과 ▲수해로 무너진 재방을 회망으로 다시 세우다 건설과 ▲딸기밭 물놀이장에 풍덩! 논산에 흠뻑!(산림공원과) ▲행정공백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적극 대응시민 추천)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와 휴대기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를 제작하여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지역경제 신진대사' 혜력소로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오는 1월부터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류·모바일·카드 구분 없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대부분의 자자체가 국비 예산 미결정으로 인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산시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시비 6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마중물로 토대로 모든 형태의 지역화폐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논산사랑지역화폐는 개인당 월에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액은 총 150만 원이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NH농협,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어플리케이션 'check'에서 충전할 수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엔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64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6만 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적극행정 활성화' 박차... 하반기 우수사례 발굴·공유

창의적인 자세로 '같이하는 적극행정·가치 있는 시민행복' 추구 목표

논산시, 청내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9건의 적극행정 수범 모델 뽑았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다양한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공유·확산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9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성과사업과 함께 이뤄진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실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에 대한 시민투표·직원투표 등 온라인 심사와 발표심사가 추가로 이어졌다. 이후 논산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9건의 우수사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선정된 주요 사례로는 ▲아시아 한상과 논산, 세계를 넓다(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최우수) ▲논산시 대중교통 사상 최초 행정기관 주도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교통과, 우수) ▲선제적 대응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성동면, 우수) 등이 있다.

역대 최초로 '아시아 한상대회'

를 국내에서 유치해 낸 도전적 성과.

시 관계자는 "혁신적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뒤바꾸고자 한

사회에 혁신적 점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모습이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공적자(관련 부서)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는 물론 특별 휴가 및 포상금 등 각종 우대를 안길 계획이다.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행복에 기여한 공직자를 빛내어 적극행정의 가치를 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끔 만든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혁신적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뒤바꾸고자 한

광 및 경제활성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그동안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기다려주신 구릉면, 내사면, 외사면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사를 추진한 대전

충정

2023년 종무식



최원철 공주시장=29일 오후 4시 공주문화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3년 종무식에 참석.

2023년 종무식



김동일 보령시장=29일 오전 10시 보령문화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년 종무식 참석.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



이완석 서산시장=29일 오전 9시 30분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시연합회 성금

기탁식 참석, 오전 10시 서산시청 현관앞에서 열리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 참석, 오전 11시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하반기 공무원 정년퇴임식 참석, 오후 1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6대 부시장 이임식 참석, 오후 2시 30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서산시청 종무식 참석.

금산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박병인 금산군수=29일 오전 10시 군청 대용도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년 금산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참석.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확정

지역무형유산 집대성하는 중심시설로 기능 수행 예정… 2027년 준공될 전망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이 충남 서산시에 들어선다. 시는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이 지난 9월에 선정한 (가칭) 서산시 문화 전통기부의 복원·재현을 비롯

한 무용·연희 분야 특화, 무용연희단 운영, 국악연구센터, 국악과 키비움 등 충청권의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담아 지역무형유산을 집대성하는 중심시설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원섭 서산시장 지휘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악원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서산 건립을 건의하고, 올해 국립국악원 분원의 서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건립 유치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따라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국가용역이 완료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예술타운 부지조성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준공될 전망이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은 총사업비는 약 335억 원으로 대지면적 11408m²에 연면적 4,194m²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남원, 진도, 부산, 강릉에 이어 다섯 번째로 건립되는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은 그간 충청권에만 없던 국립국악인 인프리를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중고제판소리보존회

에서는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을 크게 환영하며, 분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이원섭 서산시장에게

2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원섭 서산시장, 김경호 (사)중고제판소리보존회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좌측부터) 김호택 충남공동모금회 부회장, 박병인 금산군수, 오상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이웃사랑 성금 1억 4천만원 기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수일, 이하한국타이어는 28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박병인 금산군수, 김호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오상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1억 4천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장애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 내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상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밭굴과 지원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과 김장나눔’, ‘벽화마을 조성’,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 기자



포장마차 운영에 도전하세요~

모집기간: 2023. 12. 26. ~ 2024. 01. 08.
접수처: 공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운영팀(041-840-8122)

최원철 시장은 “제민천변에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올해 예술인활동지원 확대 성과

2024년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도비 5.6억원 확보



▲ 제64회 한국예술제에서 서산여고 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금산군, 연말연시 제야의 타종 및 해맞이 행사

“뜻깊은 자리 가족, 친지,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금산군은 연말연시 제야의 타종 및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금산문화원(원장 장호이) 주최·주관하는 제야의 타종 행사는 올해 12월 31일 오후 11시 금산인삼엑스포광장 금산인삼대종각에서 열린다.

부리풀불단 ‘길놀이’, 팝페라 듀오 페스타 ‘희망의 노래’ 등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가래떡·군고구마 굽기 체험도 예정됐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사자가 잡귀를 쫓아 마을의 평안을

비는 북청사자놀을 초청공연을 통해 옛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삼대종과 타종은 참가는 금산문화원(☎041-754-2724)에 문의하면 된다.

2024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내년 1월 1일 오전 6시 30분 금산인삼엑스포광장에서 추진된다.

이 행사는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에서 주관하고 금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안녕을 기원하며 모닥불 밝히기를 시작으로

퓨전국악 공연, 새해 덕담, 소원지쓰기, 새해 안녕기원제, 해돋이 보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산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따뜻한 어복과 떡국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받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나눌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행사는 금산인삼엑스포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뜻깊은 자리인 만큼 가족, 친지,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웅천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웅천천 수질 보호 및 홍수 피해 예방 등 환경부 효율적 관리



보령시는 28일 웅천읍에 있는 지방하천 웅천천(주산면 보령읍 여수로 하단~웅천읍 황고리 산46-1번지선, 연장 13.9km)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하천 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웅천천은 지난 1997년 보령댐 준공 이후 농업용수 부족으로 부시지구 내에 염해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건천화되며 생태계 변화로 옛 하천의 정취를 잊어버렸었다.

또한 홍수 시 우수법암 등 재해 피해가 반복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었으며, 보령시와 웅천읍 주민들은 웅천천의 국

기하천 승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웅천천은 지방하천으로 80년 빈도 강우로 설계되어 관리되었으며, 이는 보령댐 200년 빈도 강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령댐 운영 시 하류 구간 홍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는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보령댐과 지방하천의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인정적인 치수 관리와 지속적인 수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웅천천 등 10개의 하천에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조사설계 및 전략환경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웅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환경과 치수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라며 “웅천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협조 체계를 잘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신안사 소장문화재 학술대회

금산군은 지난 27일 청진회관에서 불교문화재 전문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안사 소장문화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신안사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신안사장 호암 스님의 개회사를 전했다.

주요 발표 및 토론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 종료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 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치료비 지속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양성자 감시체계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월드 유전자 검사(PCR)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의료기관에서는 ▲60살 이상 ▲12살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 검사(PCR)를 계속 지원한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는 종료되지만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병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신안사 소장문화재 학술대회

금산군은 지난 27일 청진회관에서 불교문화재 전문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안사 소장문화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신안사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신안사장 호암 스님이 개회사를 전했다.

주요 발표 및 토론은 ▲대광전의 건축적 특징과 문화재 가치(오세덕 신경주대학교 교수) △아미타산존불좌상의 역사적 재구명(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신안사 칠층석탑의 조성시기 및 양식분석(전민숙 한국미사박물관 연구원) △신안사 소장문화재 활용 방안(류호철 양성대학교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제원면에 소재한 신안사는 삼국시대 신라 진녀여왕 5년(611년)에 자장(慈藏)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리의 미지막 왕인 경순왕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 신안사(身安寺)라 명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신안사에 있는 충남도 유형문화재 대광전, 아미타산존불좌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및 비지정문화재이지만 그 가치가 뛰어난 칠층석탑 등의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정복 기자

KT&G 이사회,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본격 가동

약 3개월 간의 체계적 절차 진행... 28일부터 사장 후보 공개 모집

KT&G는 28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를 열어 사장 후보 심사기준 등을 의결하며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이사회는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외이사만 참석했다.

이날 KT&G 이사회와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계획, 사장 후보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사외 사장 후보 Pool은 공개 모집 및 서치펌 추천 방식을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보들로 구성된다. 사내 사장 후보 Pool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및 시장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및 사내 사장 후보 Pool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후 지배구조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KT&G는 지배구조위원회 주도 하에 향후에는 사외 사장 후보 Pool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는 사장 후보의 지원자격은 담배 또는 소비재 산업(소비재 제조 및 유통업)에서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업부의 손의 관리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담배 또는 소비재 산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영 전문성 ▲신사업 추진 역량

및 글로벌 전문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직관 및 전략적 사고 능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관리역량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도덕성 및 윤리의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공개 모집 서류 제출은 내년 1월 10일까지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모집에 대한 세부 내용은 28일부터 KT&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G의 사장 선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서 약 3개월에 걸쳐 지배구조위원회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보고 및 주총 승인'의 3단계 프로세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 말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이사회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CEO 선임 프로세스의 고도화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다 강화했다"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사장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온 아동·청소년기의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장기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유도하고자 진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최고는 금연이다. 이번 기회에 금연 클리닉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연 실천에 도전해 꼭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대 LINC3.0사업단 '제2회 ICT융합 산학협력협의회' 성료

당진시보건소는 흡연자들이 금연 성공을 돋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금연하고자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연 클리닉은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최초 방문 시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금연 상담사가 9회 이상의 1:1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생활 등으로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금연 클리닉 카카오특 채널 '당진시 금연온(ON)'을 통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12월 5일과 7일 당진중학교와 서정초등학교 등 관내 초·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미술쇼 및 금연콜든 장학퀴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흡연 예방 교육

있다.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적극 돋여 하기 위해 행동 강화 물품 7종(은단·캔디·손지압기 등)과 금연보조제 2종(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을 6개월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생업과 직장생활 등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금연 실천을 돋기 위해 사업장, 단체 등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금연 상담과 각종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12월 5일과 7일 당진중학교와 서정초등학교 등 관내 초·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미술쇼 및 금연콜든 장학퀴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흡연 예방 교육

램 소개에 이어 주제 샘플 염준영 대표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영환 LINC3.0사업단장은 "ICT융합협의회 회원들의 대전대학교와의 쌍방향 산학 협력에 감사드리며, ICT융합협의회와 함께 지역기업 활성화 및 지역정주 환경 개선 등 RISE 사업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한전원자력연료,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21년과 2022년에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상위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 평가에서는 1등급으로 상승하며 최상위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인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4개 기관만이 1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중 한전원자력연료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같은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 III 45개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렴의식 내재화 ▲반부패 시스템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진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렴 우수기업 도약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한전원자력연료는 최의수 사장의 주도로 관리자의 청렴리더십을 강조하며, 2년째 관리자 청렴리더십 진단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이밖에도 사내 소통채널인 청렴에 이전트를 중심으로 CEO와 직원간, 계층간, 세대간 소통간담회를 통해 청렴의식 확산 활동을 확대해나가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활동을 시행했다.

최의수 사장은 "전 직원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백석대 대학원, 전공 다수 신설... '범죄심리학', '영화·영상학'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대학원이 석·박사과정 전공을 대거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은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상담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학 전공,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과정 ▲음악교육학, ▲미술교육학 전공은 외국인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다.

기독교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옵토메트리학 전공,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학, ▲범죄심리학, ▲교정복지학 전공,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영화·영상학 전공이 신입생을 맞이한다.

특별히 '범죄심리학 전공'은 범죄 경

향과 범죄자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이상심리연구, 범죄심리학, 피해자심리학 등의 이론과 법적·범죄 프로파일링, 심리 및 위험 평가,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실습과 복무를 병행해 교육할 계획이다.

백석대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는 "범죄심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으로 범죄자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심리적으로 이해해 다양한 범죄의 범죄 경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죄심리 전문기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화·영상학 전공'도 눈길을 끈다. 영화·영상학 전공은 강남의 영화사, 광고 시장을 비롯 예술의전당 등 관련 업계와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K-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연출, 기획, 제작, 시나리오, 연기, 영상 디자인, 공연영상, 크리에이터 등 영화·영상 제작 전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극한의 지극이 난무하는 대중문화의 흥수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담은 콘텐츠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 모집 기간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9일(금)이며,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 02-520-0713으로 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송병배기자

공주시, 충남최초시행... 저소득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4년 새해부터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호용한 이사회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은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생활밀착형 돌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2024년 1월부터 무료로 우유배달로 돌입할 예정이다.

우유는 매일 유업 배달망으로 주 3회 배달되며, 우유가 주민에게 2번 이상 쓰이면 시에서 어르신의 건강이나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 3만 402명(전체 인구 중 29%)과 노인 비율이 9325명(전체 노인인구 중 30%)으로 노인 비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여서 이번 사업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고독사 위험이 큰 흠집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사단법인을 감사드린다."며 "노인 인구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목원대, 대학기관평인증 획득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 등에 근거해 한국대학평기원이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인증'에서 5개 평가영역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다.

목원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이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은 'IMAGE+ 혁신인재'로 정립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역량, 전공역량, 학습역량'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양 교육혁신연구센터, RGB발전소, SW창의교육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교양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LINC 3.0,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과 연계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및 지역대학,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원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이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IMAGE+ 혁신인재'로 정립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역량, 전공역량, 학습역량'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양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LINC 3.0,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과 연계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및 지역대학,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선기자



유혜정씨, 대전대 대학원장

'병원 발전기금' 6000만원 전달

유혜정씨(오른쪽)가 28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세미나룸에서 김영일 병원장(왼쪽)에게 병원 발전기금 6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유혜정씨는 "오래전부터 설립자분을 알고 지내며 대전대학교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후원을 하게 됐다"며 "대전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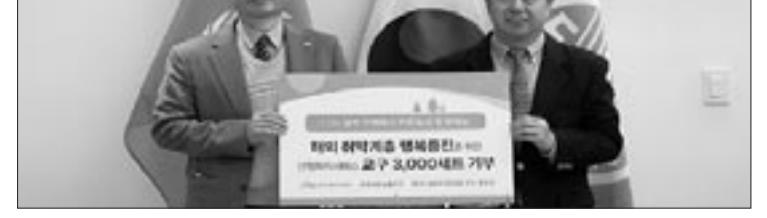
김영일 병원장은 "여러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한방병원은 인재 육성,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 미래의학 선도,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 기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병원 1층에 기부자명판을 마련해 기부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에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동원금속(주) 이산공장, 취약계층에 식품 후원

아산시는 지난 26일, 동원금속(주) 이산공장(대표 이은우, 박승룡)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750만 원 상당의 즉석간편식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이해 동원금속(주) 이산공장의 노사가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산림복지진흥원, 해외 취약계층에 식품 후원

교구 3천 세트 FAO 기부

28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사무실에서 열린 '산림복지전체화 및 협력사업' 국제회의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이하 진흥원) 민간성장지원본부 이우진 본부장(오른쪽)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탕생아우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사무소(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송대윤·송인석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제1선거구)이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중구 '2023년 옥외광고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수상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2023년 옥외광고 업무 유공'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이인면분회 부설 이인노인대학 제3기 수료식 개최 대한노인회 이인면분회 부설 이인노인대학은 지난 27일, 노인대학생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023년도 이인노인대학 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4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창우 학생 등 6명이 학장과 기관단체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한돈협회 청양군지부, 성금 500만 원 기탁 (서대한한돈협회 청양군지부(지부장 강선조)는 지난 27일, 청양군을 방문해 군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한남대 축구부 '4관왕 그랜드슬램' 조형물 제막 한남대가 2023년 대학축구 4관왕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웠다. 28일 오후 2시 한남대 종합운동장 본부석에서 그랜드슬램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한국은행 총재 대외 포상 실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송두석)는 지난 27일 2023년 한 해 동안 대전세종충남지역 발전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경제 조사에 공헌한 발권부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기업은행 박종욱 팀장, 지역경제부문 한국수자원공사 권순경 차장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대전보훈요양원, 사회복무 요원 복무관리 우수직원
이지현 사원 선정



한국 보
훈복지의
료공단(이
사장 직무
대행 하유
성) 대전보
훈요양원

(원장 정도일)은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이 주관한 '2023년 사회
복무요원 복무 기관실태 조사'
에서 최고의 사회복무요원 복
무관리 우수직원으로 이지현
사원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충남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복무 민족도 향상과 사고 예방
을 위해 매년 근태 등 복무상황
관리, 고충 면담 실시, 사회복무
요원 업무 관심도에서 높은 점
수를 받은 직원에게 상을 수여
한다. 이에 따라 요양원에서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지현 사
원이 대전충남병무청장 표장을
받았다. 승병배기자

독립기념관, 역사 현장 속 여성독립운동 조명



와 여성독립운동가' (2022, '여성 단체들의 독립운동'·2023으로 5권에 걸쳐 등장하는 여성 독립 운동가는 100여 명이 넘으며 개개 인부터 여성 단체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전선에서 보여준 다양한 활약성이 담겨있다.

역사의 현장에서 여성들은 누구의 딸·아내·어머니가 아닌 스스로 독립운동에 나선 근대 여성들이었다. 무명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노동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체, 민족의 주체가 되어 독립운동 현장에서 활약하였다.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한국역사연구회·역사공장과 함께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기획·발간하였다.

2019년 시작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는 올해 제5권을 마지막으로 완간되었다.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는 '3·1 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2019), '항일 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2020), '국내 사회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 (2021), '국외한인사회

좌를 개최한 장소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등 협업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대중화를 위한 대전시립박물관 경남 창원 교통문화연수원, 충남 천안 병천면의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9 역사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중과의 소통의장을 열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독립운동가의 활약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1권 '3·1 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내 수록된 '권애라' 편은 충청남도 접자도서관과 협업하여 접자책으로도 발간되어 전국에 있는 접자도서관과 특수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등에 배포되었다.

개성의 첫 3·1 만세시위를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한

'권애라' 편에는 그와 함께 활약한 심영식(1897~1983) 열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심영식 열사는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독립운동에 나선 인물로, 장애를 딛고 독립운동의 주체가 된 회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자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 사업은 공공역사의 소재로 무한한 확산이 가능하며 독립기념관 평생 교육원의 온라인 연수콘텐츠를 통해 무료 강좌도 들을 수 있다.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워크숍에서는 '3·1 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이 추천도서로 활용되었으며, 2023년에는 여성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낭독극이 대학로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전안=이정복기자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예산다다푸드마켓과 기부협약 체결

예산다다푸드마켓 나눔업체 현판식

예산군은 한국 전력 공사 예산지사(지사장 류현수)와 예산다다푸드마켓(마켓장 김동경)이 나눔업체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한국 전력 공사 예산지사 고객 지원부장 및 차장, 예산다다푸드마켓장, 군 주민 복지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산다다푸드마켓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지원 받거나 각계 각종에서 후원받은 기부식품을 매월 관내 저소득층 300여명에게 제

공하고 있으며, 한국 전력 공사 예산지사는 지난해 3월 예산다다푸드마켓과 기부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달 10만원씩을 후원하고 있다.

김동경 예산다다푸드마켓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푸드마켓에 후원을 해주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더 넓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한국폴리텍IV대학 - 행복교육이음공동체

상호협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IV대학(학장직무대리 공병채)은 12월 28일 행복교육이음 공동체(대표이사 오석진)와 지역 산업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양 기관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복교육이음 공동체(Happy Edu-Link Partnership; HELP)는 교육적인 해결과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비 모색을 목적으로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자 하는 구성원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입학지원 확보를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후 양 기관은 ▲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활성화 ▲ 학생(외국인) 입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 학생 진로진학 상담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 인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양 기관이 협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병채 학장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이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우수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동구,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지원

자혜아동복지센터, 평화의미아동센터에 각 1대씩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7일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하며, 안전 운행을 소망하는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승식은 통학버스를 지

원받는 시설 중 한 곳인 자혜아동복지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박희조 동구청장, 박영순 동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도 반드시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차량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며, 향후 다른 아동복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차량 지원을 받게 된 양승연 자혜아동센터 원장은 "이번 지원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태선기자

온양삼일교회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1000만 원 후원



이산시는 지난 27일, 온양삼일교회(담임목사 최동훈)로부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를 통해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동훈 담임목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도들의 정성으로 마련했다"며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현신·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맥키스컴퍼니가 키운 청년양조기업 당당한 독립선언

참새와 꽃게 30일 인큐베이터 '누룩' 졸업, 내년부터 새 양조팀 '뉴뱅' 입주



'훈돈'을 올해 4월 출시했다. '훈돈'은 논산의 유기농 쌀과 전통누룩을 발효해 제조된 제품으로 4월부터 약 9개월간 1100여 병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대전 유성구 어은동과 대전 갤러리아타임월드 지하 식품 매장에서 각 운영 중인 '누룩'과 우수중, 심야식당, 한국술집 인씨막걸리 등 요리주점과 애주금회 등 비빔밥, 카페 연남방앗간 등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인천 주점 더문, 공주 카페 프론트에서도 판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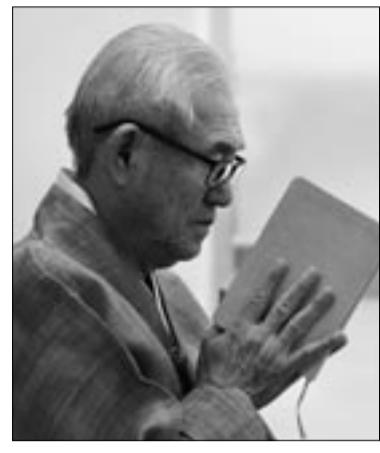
참새와 꽃게는 맥키스컴퍼니가 주류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본정한 비틀 삼이자 청년양조사 인큐베이팅 공간인 대전 유성구 어은동 '누룩'에 지난 3월 입주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맥키스컴퍼니가 사업화자금, 전략적 투자,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알코올도수 115%의 탁주

뉴뱅은 '누룩'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맥키스컴퍼니와의 콜라보 제품은 물론 내년 출입 시즌을 목표로 유럽권 수출도 도전할 계획이다.

승병배기자

천명일 '이야기천자문'

宇宙洪荒 <字집우 宙집주 洪荒을 홍 荒거칠 황>



천명일

우주는 넓고 끝이 없다

'천天'의 생태를 공간학적으로 보면 원형의 공상空相이 되므로 '집 우宇'라 한다. 이 원형의 공간은 사방四方과 간방間方, 그리고 상·하

방이 합쳐져서 열 방향十方이 된다. 이 시방十方이라고 하는 공간 각도의 성질을 천간天幹이라 하는데, 그 속성에 따른 원기元氣의 이름을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申·임壬·계癸라 한다. 이것은 공간의 독특한 성품에 불인 이름이다.

'집 주宇'는 공간의 네 방위와 과거·현재·미래로는 삼시三時가상 호보완적으로 반복되므로 사방四方×삼시三時=12시가 된다. 여기서 주宙는 시간을 의미한다. 주宙는 시간성으로서 결국 대지에 예속

되므로 12시를 12지地枝라 한다. 12지에 따른 시간성의 명칭을 자자·축표·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辛·유酉·술戌·해亥라 한다.

지구상에는 시간성의 성질로 기생하는 생명의 종류가 모두 열두 부류가 있는데 이를 12류 중생의 생사가 끌어 없음을 뜻하는 문자이다.

'넓을 홍洪'은 우주의 공간으로 끝없는 허공계를 상징한 문자이고, '황荒'은 과거·현재·미래로 생·주·이·멸하는 12류 중생의 생사가 끌어 없음을 뜻하는 문자이다.

대전투데이

16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대전투데이

대전예술포럼 ‘2023년 대전 아티스트’ 선정

지난 12월21일 대전예술포럼(대표 도완석)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3년 한해동안 예술인으로서 두드러진 예술활동을 해온 지역 전문 예술인 6명을 분야별로 심사하여 <올해의 대전아티스트>로 선정 시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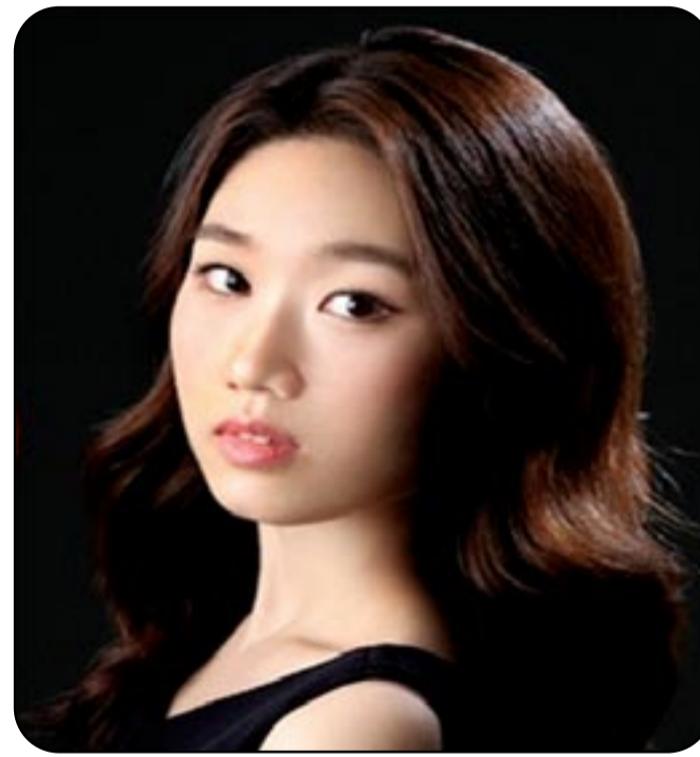
이 행사는 민간예술단체인 대전예술포럼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금년도에는 MJ원드오케스트라(단장: 한미선, 지휘자: 최영도)와 함께하는 송년음악의 밤으로 행사를 치루었다.

이 자리에는 대전의 원로예술인이신 도한호(시인/전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박사, 장인순(전 원자력연구원장)박사 및 유명 부흥사 장경동목사, 정상철, 윤여표박사 등 전직 대학총장들과 황인무(전 국방부차관), 이정기(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장군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예술육성에 뜻을 보태고 있는 8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 수통골 미가의 집 홀에서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올해 대전 아티스트>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다음과 같다.



미술부문 전경희 민화작가

=한남대 미술교육학과 졸업
제1회 전경희 개인전(문화공간 주자/2022)
제2회 전경희 초대전(캘리리 고트빈/2023)
제3회 전경희 초대전(TCIS 대전외국인학교/2023)
서재홍, 전경희 부부초대전(예술공간 안남/2023),
83그룹전(세종보갤러리/2023)
2023서울아트쇼(코엑스/2023) 등 민화개척자



음악부문 원민지 첼리스트

7세 때 태국왕실에서 상록오케스트라와 협연
8세 때 서울시향과 협연/연세대학교 음악대학 16세 최연소 입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학사학위, 줄리아드 음대 석사학위,
콜번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수학,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 콩쿠르 4위 및 실사위원 특별상,
나폴리노비 국제 콩쿠르 외 다수의 국내 콩쿠르 1위 및 대상 수상.
현) 대전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 및 전문연주자로서 활동 중.



무용부문 이강용 무용가

중앙대학교 무용학부사 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이수자
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 굿거리춤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의정부시 전국무용제 대상 수상
전주대시습놀이 무용부 장원 수상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대통령상 수상
춘향국악대제전 무용부문 대상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한양대, 중앙대에 무용학과 겸임교수



연극부문 손종화 연극연출가

극단 미당 대표
대전지역 연극 40년 인생
연극연출가
무대 전문 조명디자이너
연극배우
대전연극협회부회장 역임
대흥독립민세 집행위원장
소리꾼 창사익공연 조명감독
목원대, 대전과학기술대 강사



문학부문 손혁건 시인

2005년 「문학세상」 등단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수료
(사)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 15대, 16대 회장 역임
(사)국제시시랑협회 회장(현)/(사)한국문인협회 이사(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자문 위원(현)
시집『동그라미를 꿈꾸며』, 『흔들리는 꽃 속에 바람은 없었다』
시·사진집『길을 나서면』
공저서집『낮은 음계』, 『우리가 나무가 되어』 외 다수



국악부문 김병곤 전통예술인

원광대 국악학 박사
전국청소년예술경연대회 대상수상(문화부장관상)
단국대 국악학과 4년 장학생 졸업
국가 무형문화재 제5호 종묘제례고법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대전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농악 전승교육자
(현) 대전광역시 시립연정국악원 지도위원